

위험한 화물차 불법주차, 코로나에 부쩍 늘었네

일감 줄어들면서 광주 아파트·주택가 등 곳곳 밤새 점령
지자체 차주들 힘겨운 사정 고려 단속 손 놓고 계도 위주
교통사고 위험 상존 속 광주시 11월부터 집중 단속 계획

"경기장 주변 도로에 밤새 주차를 해두는 화물차들이 부쩍 늘었어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도 밤새 주차를 해두 위험하고 트럭에 치일까 무서워요."

심야에 광주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를 일삼는 대형 트럭·화물차들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주들이 밤새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찾아진 데다, 이들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들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주택가 곳곳에 불법 주차돼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데다, 교통 불편 및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송 물량 줄어 세워놓는 화물차 많아
주말·주말 등지에서 불법 밤새 주차하는 화물차는 코로나19 여파로 부쩍 늘었다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일감이 줄면서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은 데다, 화물차량 공용차고지도 적어 도심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하거나 밤새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밤새 불법 주차로 적발한 화물차량은 2125대에 달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한 건 133대 전 전부다.

자치구 단속반이 심야 현장을 돌며 적발한 밤새 불법 주차 화물차는 2054대(2018년)→2564대(2019년)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밤새 주차를 해놓는 운전자가 더 많아졌다. 화물차 기사들은 "코로나 이후 공산품, 건설자재 등이 줄어들러 급감하면서 주차해두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년같으면 5t 화물차 기준 한 달에 20회 정도 운행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운행 건수가 평균 11회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영업을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에는 주차할 수 없지만 광주에 화물차량 공용차고지가 부족한 점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또 화물차량 소유주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한 달 수십만원 이상의 돈을 줘야 하는 탓에 '서류상' 차고지만 허위로 신고해놓고 도심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해놓는 화물차량 소유자도 많다는 업계 분석이다.

자치구는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밤새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한다.

하지만 계도 위주로 이뤄지면서 과징금 부과는 미미하다. 2018년 596대, 2019년 638대 등에 대해서만 부과한 게 전부다.



23일 오후 화물자동차 상습 밤새 불법주차 구역인 광주시 서구 서광주역 인근 도로에 대낮임에도 화물차가 불법주차돼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사실상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자치구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무조건 단속할 수도 없어 난감한 실정"이라며 "오는 11월부터 다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화물차 상습 밤새 주차 많아
= 광주시 광산구는 화물차 밤새불법주차 차량이 약 1000대 이상이다. 광주시는 45곳을 상습적인 밤새 불법주차차량이 이뤄지는 곳으로 꼽아놓고 단속을 진행 중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밤새불법주차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도 광주시 광산구(1782대)다. 광산구의 경우 지난 2018년

에도 2054대 중 1529대가 적발됐고 지난해 2564대 중 1820대가 광산구에서 적발됐다.

광산구 송정동 공영입구 주변, 하남 홈플러스 인근, 운남대교 밑, 남부대, 비아중, 장덕초 등 학교 주변도 밤새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북구도 15곳이 '상습 밤새불법주차'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서·동·남구에도 밤새 불법주차차로 약 1000여대의 장소가 각각 6곳이다.

서구는 풍암동 롯데아울렛과 시체육회 인근 도로,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에서 불법 주차차 화물차가 많고 북구는 임동 한 국아파트 주변, 문흥동성당, 고속도로 용봉IC 주변, 두암동 제 2순환도로 입구, 광안고개 인근 도로 등에서 밤새 주차된 화물차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남구 방림터널, 양림휴먼시아 2단지 등도 밤새 주차된 화물차로 가득이나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도 쉽지 않고 운전 중 잠시 눈을 팔면 트럭과 충돌할 위험도 높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독감 예방접종 행렬
유통상의 문제가 발생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일시 중단된 지 이틀째인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백신 수급 부족을 우려한 시민들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기행각 여성 사채업자, 카지노서 23억 탕진

도박자금 포함 44억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개인적 사용 부인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수십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빼돌린 돈 수십억원을 카

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공동 대표이사로서

있는 회사의 부동산 매입자금 45억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3억7000여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4억8700만원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일 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23억 7000여만원을 썼다는 게

검찰 등 수사기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44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사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또 "공금 중 절반인 22억 이상은 토지 매입비로 지급했고 현금으로 지급할 게 많아 카지노를 찾았다"고 발언, 추후 변호인을 통해 다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쓴 자금의 출처, 경

위 등을 특정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1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경력과 이른바 '지역 자산가'들과 맺은 인맥 등을 활용,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 의사, 유력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병합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 결심 공판 다음달 5일 진행 검찰 구형량 관심

오는 10월 5일 전두환(89)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이 이날 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씨에 얼마나 구형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 8단 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도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규정을 감안, 일반 방청석을 15석으로 제한하는 등 법정 인원을 50명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후배들과 공모 사기도박 8억여원 가로챈 8명 검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흥지역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경기도에 본사를 둔 언론사 주재 기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흥경찰은 23일 이른 후배들과 공모해 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경기도지역 모 언론사 장흥주재기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장흥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이며 특수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8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투패에 특수물질을 바르거나 초소형 칩을 내장한 화투패를 사용하는가 하면, 적외선 카메라, 이어폰 등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피해자들 돈을 빼앗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흥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 등을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소문을 추적, 내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일부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벌여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김용기 중부채본부장 kyk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